이덕일의 '역사의 창'

임나일본부설 선전하는 국립박물관 가야전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역사 문제라고 답할 것이다. 일본 극우파 역사관인 황국사관(皇國史觀), 즉 조선총독부 역사관이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장악한 현 상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현재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가야본성-칼과 현'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다. 가야사를 복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전시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언급한 것은 그간 역사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수수께끼의 가야사를 되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전시를 관람해 보니 유물은 훌륭했다. 철의 왕국 가야라는 명칭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야 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한곳에 모아 놓아 탄성이 나왔다. 문제는 그 설명문과 연표 등이었다. 설명문과 연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친일 일색이었다. 그런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가 다음의 연표다. "369년 가야 7국(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군의 공격을 받음(서기)"

서기 369년에 가야 7국이 백제·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백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바다 건너 왜가 369년에 과연 가야를 공격했을까? 369년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사료를 살펴보자. 369년은 근초고왕 24년인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이해 9월 고구려 고국원왕이 기병과 보병 2만 명을 거느리고 공격하자 근초고왕이 태자 근구수에게 군사를 주어 격파하고 5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고 전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수(漢水)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황색 깃발은 황제의 깃발이다. '삼국사기'는 2년 후인 371년에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전한다. 이 시기 백제의 주 전선은 고구려였지 가야가 아니었다. 그럼 369년에 왜가 백제와 함께 가야 7국을 공격했다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의 연표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 연표에서 말하는 '서기'는 '일본서기'를 뜻한다. '일본'자를 빼고 '서기'만 쓰는 방식으로 관람객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369년 야마토왜가 가야 7국을 점령해서 임나를 설치하자 백제 근초고왕이 야마토왜의 사신에게 영원히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구절이 일본 극우파들이 369년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삼국사기'는 근초고왕이 371년에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오는데, '일본서기'는 야마토왜에서 사신이 오자 근초고왕 부자가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나온다.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물론 '고구려본기'에도 나오고, 중국의 '위서'(魏書), '북사'(北史) 등에도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야마토왜에서 온 사신에게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다는 기사는 연대부터 맞지 않는 '일본서기'만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허황된 내용들로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다시 조선총독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광복 후에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했던 친일 역사학자들이 청산되기는커녕 역사학계를 장악한 것이 핵심 뿌리다. 이들은 "역사학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돈만 대라"는 역사의 독점화 논리로 카르텔을 쌓으면서 일반 국민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조선총독부 역사관 이외에는 무지하게 만드는 역사의 사맹화(史盲化)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은 물론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도 정작 국사에 무지한 역사의 사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의료칼럼

눈매가 인상을 좌우한다

김 지 훈
동양미인의원 원장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카메라 성능이 발달하면서 사진 찍기 열풍이 일고 있다. 예쁜 각도에서 찍은 셀카나 친구,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서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올라온 사진들을 서로 확대해 보면서 시원하고 매력적인 친구의 눈매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평상시 잘 모르다가 사진을 통해서 어느 순간 주름지고 처진 자신의 눈매를 발견하기도 한다.

작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매는 매서운 느낌을, 동공이 많이 가리고 눈두덩이 두툼한 눈매는 강하고 무서운 느낌을,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멀 경우 답답한 느낌을 준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피부가 처진 경우에는 온화하지만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사진 찍기를 꺼려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렇듯 인상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단연 '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면접을 앞두고 피곤하고 졸려 보이거나 답답한 눈매를 가진 안검 하수(眼瞼下垂·눈꺼풀 처짐) 소견을 개선하고자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썹과 이마의 힘으로 눈을 뜨는 습관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빨리 생기고 눈동자가 평상시 많이 가려져 있으면서 피부에 여러 겹의 주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졸리고 피곤해 보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가 쉽다.

이 경우 각각의 눈 상태에 맞게 매몰법과 절개법을 통해서 눈매 교정과 필요시 쌍꺼풀을 동시에 시행해서 크고 시원한 눈매로 교정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은 경우에는 흉이 없고 붓기와 멍이 적어서 빠른 사회생활 복귀가 가능한 매몰법을 이용한 눈매 교정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주름지고 처진 눈꺼풀로 인해 나이 들어 보이고, 심한 경우 시야가 많이 가려서 사물을 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눈 가장자리가 짓무르는 불편함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중년과 노년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절개법을 이용한 상안검 성형 수술로 처진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고, 필요 시 눈에 어울리는 적당한 쌍꺼풀을 함께 해서 젊고 활기찬 인상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눈에 따라서 쌍꺼풀로 인한 인상 변화를 꺼리는 경우에는 기존의 속쌍꺼풀 라인에서 처진 피부와 지방만을 제거하고 봉합하거나 흉을 최소화한 눈썹 하거상술을 통해서 눈꺼풀 처짐 만을 개선한다. 5년에서 7년 정도 젊었을 때의 눈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눈꺼풀 처짐과 함께 눈 밑 부위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게 된다. 평소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본 순간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발견하고 놀랐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을 둘러싸고 있던 안와격막이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뒤에 있던 지방이 중력의 영향으로 튀어나와서 생긴 현상이다. 여기에 피부가 처지면서 나이테처럼 겹겹이 주름이 잡히고, 간혹 색소 침착으로 다크서클이 동반되기도 한다. 인상이 무섭고 어두워 보이는 주된 원인이다.

피부 처짐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결막하 지방 재배치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출된 흉이 없고 붓기와 멍이 적어서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도 흉이 잘 안 보이게 속눈썹 아래 부위에서 피부 절개를 하여 늘어진 피부와 지방을 적당히 제거하고, 남은 지방을 재배치해서 밝고 젊은 인상으로 바꿀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답답하고 졸린 눈매,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눈매의 고민도 이제는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기 고

문화 예술 교육이 키워 내는 '상상력의 힘'

이 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연구사

'양림 어린이 예술학교'가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매년 두 번 여름·겨울 방학 중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방학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내는 이강하미술관의 대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자 어린이 예술 캠프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명한 스타 강사도, 값비싼 재료나 고급 간식도 없다. 예술가와 어린이가 미술관에서 만나 예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소통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학부모들 사이 입소문이 나 모집 시작 15분이면 마감된다. 더 많은 희망자들을 받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다.

양림 어린이 예술학교는 현재 학교 교육 같은 결과물 중심이 아닌, '예술의 본질이 전해 주는 상상력과 재미, 그리고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사유해 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과 이강하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자문 전문가들의 기획 회의를 통해 지금의 계절과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조사나 의견을 나눈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예술가들의 작업 속 컨셉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연결한다. 이번 주제는 '겨울 만들기'로, 총 엿새 동안 여섯 명의 예술가들과 다섯 명의 보조 강사, 그리고 참여 어린이 20명이 함께했다.

우리에게 '겨울'이라는 계절은 어떤 방식으로 추억 또는 기억될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겨울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겨울을 만들어 기억해 보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요즘 아이들에게 흙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도자기 위에 직접 채색까지 하며 작품을 만든 도예 수업, 설날을 기념해 아이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 연'을 만들어 바람 부는 언덕에 나가 날려보는 수업, 양림동을 산책하며 겨울 풍경, 겨울 냄새, 겨울 바람, 겨울 입김을 느껴보는 야외 스케치 수업, 명화 속 다양한 포즈를 따라해 보는 움직이는 몸 드로잉 무용 수업, 홍차의 문화 예절을 배우고 맛을 보며 드로잉하는 흥미진진한 수업이 진행됐다. 또 겨울을 맛으로도 기억할 수 있도록 군고구마와 붕어빵, 귤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아이들과 예술가, 보조 강사 모두가 신나고 행복한 예술 활동이었다. 어쩌면 수업이라기보다는 미술관에서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의 에너지로 놀아 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모든 수업이 어린이들과 예술가들의 손발이 딱딱 맞아 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 다른 예술의 의미를 재창조해 내기도 했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예술가 브루노 무나리는 "예술은 결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안에 모든 지식의 구성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 예술 교육이 자리 잡은 지 15년째 되어 간다. 평생에 걸친 세대 주기별 사회, 학교 문화 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문화 예술 교육의 큰 방향성은 모든 국민이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함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미술관을 찾아가는가? 또 미술관의 예술 작품이 주는 위로와 영감을 어느 정도 받게 될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직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을 마트에 가는 것보다 어려워하고, 미술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어릴 때부터 문화와 예술이 친숙하고 재미있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일상 속 우리가 언제든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쉼터' 같은 곳으로 인식되기까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예술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 예술 교육'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한 개인이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문화 예술 교육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 예술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은 당장 우리 입에 들어가는 밥과 고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영혼을 달래 주고 마음의 치유약이 되는 것을 진정 느끼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 내가 미술관에서 문화 예술 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가장 큰 의미다.

社 說

신종 코로나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확진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인적 이동과 물류가 줄어 유통업체나 음식점 및 관광업계의 매출이 감소하고, 제조업체들이 감산과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0일 하루 휴점하기로 결정했다. 백화점의 경우 2월에는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자 방역을 위해 처음으로 휴점을 택했다. 여기에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의 딸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이동 경로에 대한 괴소문까지 나돌면서 광산구 일대 상권은 유독 피해가 큰 상황이다.

실제 광주·전남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은 최근 보름간 각각 1.5%,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9개 영화관을 찾은 관객 역시 30만 98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8만 명) 줄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자동차와 제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기아차 광주공장은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감산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도 8~9일 휴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 지역 협력업체들 역시 큰 타격이 우려된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나 지역 금융권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미 확보된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소비 진작과 지역 활성화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확진 환자 개인정보 무분별 유출은 범죄다

16번째 및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광주에서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왔던 신종 코로나는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구촌 시대에 감염병에 예외인 지역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16번 확진자는 가족들과 태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16일 만에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한 신상 털기와 악성 댓글은 이러한 불안감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한데 어제 16번 확진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보고'라는 공문서 형식의 이 문건에는 환자 주거지와 가족관계, 최근 이동 내역, 임상 증상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까지 유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 및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출 경로 수사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건 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누군가 무분별하게 확진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범죄행위다. 첫 유출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광주 확진자 관련 기사에 지역 폄훼와 색깔론 일색의 악성 댓글이 달리는데, 이 또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염병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은 병보다 더한 해악을 끼친다.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 당국과 의료진에도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관성의 법칙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 유명한 중세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성당에서 지겨운 설교를 듣다가 일정한 속도로 흔들리는 샹들리에를 쳐다봤다. 그는 집에서 몇 차례 실험한 뒤 할아버지의 시계를 발명해 냈다. 나중에는 다시 실험을 통해 진자의 진동 주기가 진자의 무게나 진동 폭과 관계없이 오직 진자의 길이에만 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일상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과학으로 설명한 그는 관성(慣性)이라는 개념도 아이작 뉴턴보다 일찍 파악했다.

갈릴레오는 물체의 운동에 있어서 시간의 변화율 즉 속력·속도·가속도를 주목했다고 한다. 수평면을 굴러가는 금속구가 정지하는 이유는 수평면의 마찰력과 공기 저항 때문이며, 면이 매끄러울수록 더 먼 거리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아챈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금속구는 영원히 굴러갈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개념이다. '관성의 법칙'은 1687년 뉴턴의 발표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물체만이 아니라 개인·단체·기업 등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관성이나 타성(惰性)에 젖어 있다고 하는 말에는 사고나 행동에 새로움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개혁·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또한 과거와 다른 새로움을 창출하지 못해서는 미래 비전 역시 없다는 사실을 모두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새로움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물갈이'를 바라는 염원에 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하고, 선별 과정에서 주는 감동도 시원찮다. 아마도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것은 관료나 대기업 및 기존 정치인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관성을 멈추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의 발굴일 것이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을 가려내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유권자들의 행동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